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사목회장	이인학 시몬 (408) 234-5037 email : piccpeter@gmail.com		화, 금 휴무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평일미사	화, 목요일		오후 7:30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수, 금, 토요일		오전 7:30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애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와 함께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반 교육관 106호실
	향심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주일학교	-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10분

< 오늘 전례 >

- [제 1독서] 창세 2,7-9; 3,1-7
 [화 답 송] 시편 51(50),3-4.5-6ㄱ. 12-13.14와 17(◎ 3ㄱ 참조)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 사 오 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 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 2독서] 로마 5, 12-19<또는 5, 12. 17-19>

[복음환호송] 마태 4, 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마태 4, 1-11



말씀 이신 그리스도 님, 찬미 받으 소 - 서.

성가	입당 490	봉헌 115	성체 164 163	파견 280		
전례 봉사						
구 분	사순 제 1주일(3월 5일)		사순 제 2주일(3월 12일)		사순 제 3주일(3월 19일)	
	8시 미사	11시 교중 미사	8시 미사	11시 교중 미사	8시 미사	11시 교중 미사
미사해설	이정연 골롬바	1구역:황혜정 데레사	임승원 루카	2구역:장희숙 루시아	이명국 바오로	3 구역
제 1 독서	이명국 바오로	1구역:이창용 레이몬드	강신호 요한	2구역:최용일 시몬	임승원 루카	3 구역
제 2 독서	김진미 마리스텔라	1구역:정진희 데레사	이정연 골롬바	2구역:최명희 임마쿨라따	정애리 스텔라	3 구역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빵: 세월이 흐르고 어쩌다 보니 서품 40년이다. 이 이야기는 그 만큼의 한참 선배 신부님이 들려주신 것이다. ‘고소하다.’ ‘맛있겠다.’ 빵 냄새는 그렇게 나의 코를 자극했다. 혀도 자극하였다. 새벽 미사(복사) 후 큰 신부님의 사제관에서 흘러나오는 빵 냄새는 늘 먹고 싶은 유혹으로 이어졌다. “엄마, 나 빵 먹고 싶어요!” 조를 때마다 엄마는 늘 “신부되면 빵 먹을 수 있다.” 고 대답하였다. 신학교 입학시험 면접 때, “신학교에 왜 왔느냐?”, “왜 신부가 되려 하느냐?” 는 질문에 “빵 먹고 싶어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소신학교 6년, 대신학교 9년을 마치고 신부가 되었다. 첫 미사 강론 때, “저는 빵이 먹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 저를 하느님은 매일 빵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제로, 매일 빵을 주님의 몸으로 축성하는 사제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빵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고, ‘생명의 양식’ 이며, ‘빵으로 오시는 말씀’ 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유혹자는 오늘도 먹어야 사는 우리 사람에게 돌-빵의 유혹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오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꼭대기: 한국의 문화는 산의 문화이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사막의 문화라고 한다. 산에는 지도가 필요하다. 사막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한다. 산의 문화는 올라가는 문화이다. 꼭대기를 지향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학년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고, 나이도 올라간다고 말한다. 남자들은 만나 약속하고 나이를 물으면 서열이 정해지고, 지공족(지하철 공짜로 타는 족속)임도 밝혀진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서울을 향해 올라(상경)간다고 한다. 부산에 있던, 강릉에 있던, 포천에 있던 말이다. 신원(신분)이 얼마만큼 올라

가 있느냐, 어디(누구)에 가까이 있느냐로 결정되는 문화이다. 한국교회에는 15개 교구가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교구와 지방(촌놈)교구 2개뿐이 된다.

유혹자는 ‘하느님의 아들’ 신분을 근거로 ‘성경을 인용하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 보라고 유혹한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경배: 사제 서품을 받고 몇 개의 본당 소임 후 교구청에도 7년 있었다. 그렇게 은경축 후 다시 본당에 부임하였다(2003년). 그때, 본당에는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과 남자 신자도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례 받고 그 다음 주일에 빠지는 신자가 있어 충격도 받았다. 그런데 요즘은 주일미사 쫓는 신자와 냉담신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하느님을 경배하기보다 세상을 경배하는 신자가 훨씬 많아졌다. 1943년 성가소비녀회를 설립하신 혜화동 본당의 성(P.singer, 1910-1992) 신부님은 냉담신자가 1명 생겼다고 크게 걱정을 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 연배의 어느 본당 신부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한 여자 비위 맞추기(경배) 힘들어서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가 되고 나니 만나는 여자 다 비위 맞추어야(경배해야) 하더라.”

유혹자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최고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유혹한다. 또 경배-명예-인정받기에 대한 집착으로 유혹한다. 오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느님 말씀의 무장이 신앙생활의 근본이다. 삼겹 유혹(빵·꼭대기·경배)의 극복은 ‘하느님 말씀’ 을 근거로 할 때 극복 가능한 것이다.

김현준 율리오 신부
춘천교구 솔모루성당 주임

- 미사 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3/5(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생	정요셉(흥)가정	정베드로/아가다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생	이요셉(병열)	김엘리사벳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생	정베네딕다(수영)	박헬레나
	연	서데레사(춘애)	가족		생	조요셉(승구)	조데레사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생	조베드로(찬구)	조데레사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생	조야고보	조데레사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가족		생	박율리안나	임루시아
	연	Terence Franks	가족	3/7(화)	생	임스텔라가정	임루시아
	연	이요셉(재우)	윤루시아	3/8(수)	연	조요셉 15주기 기일	조마리아
	연	Richard Fong	이판금	3/9(목)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가족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영국)
	연	박프란치스코(노승)	함엘리사벳	3/10(금)	연	전안드레아(덕천)	팽데레사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3/11(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이스테파노(상준)	하모니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가족
	연	박베드로/고영환	박시몬/율리안나		연	정야고보/아가다	전데레사(윤자)
	연	김중화/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이요한(무환)	이막달레나
	생	이글라라(수인)	이요한(건호)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영국)
	생	이라파엘/이예지	이요한(건호)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